

##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지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5.9.2.~2015.12.18
귀국여부	2016.1.5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학교는 조용한 주택가 쪽에 위치해있습니다.</p> <p>학교는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시설이 좋았습니다. 특히 도서관이 크고, 시설이 좋아, 숙제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글쓰기 위주로 많이 하였지만, Listening, Reading 역시 꾸준히 배웠습니다. 또한 매수업마다, 파트너들과 토론하거나 서로 상의하여 답을 찾는 등의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Speaking역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2명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과제는 솔직히 조금 많긴 하지만, 밀리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부터 정말 꼼꼼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외국인학생을 위한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들이 있어 다른 외국인친구들도 사귀는 좋은 기회들이 많아 좋았습니다.</p>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제가 갔을 때는 9월초였는데 날씨가 좋고 따뜻했습니다.</p> <p>겨울이 오면 올수록 비가 자주옵니다. 그래서 우산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밤늦게 다니는 것은 어딜 가나 위험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홈리스들이 있긴 하지만, 위험을 느낄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v ) 외부 숙소(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지냈는데, 저의 가족은 조금 바빠 대화할 시간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아 조금 아쉽긴 했으나, 같이 생활하면 그들의 문화도 자연스레 배우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v )</p> <p>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아침은 시리얼이나 토스트, 점심은 샌드위치로 제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먹었고, 저녁은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가끔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저는 운이 좋게 학교 근처에 있는 대략 10분정도 걸리는 홈스테이에 배정받아서, 학교까지 걸어다녔습니다. 근처에 스카이트레인역이 있고, 버스정류장들도 있어 이동하기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교환학생하면서 느꼈는데 밴쿠버의 대중교통은 잘되어있는 것 같습니다.</p>

### 3. 생활전반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대략 74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아는 지인을 통해 보험을 들었음.
숙소	한달에 800불정도	
교통비	한달에 91불	monthly pass(91불)을 사면, 스카이트레인, 버스를 다 탈수 있음
책값		
기타2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시내안에 한인마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밴쿠버 오실 때 굳이 한국음식을 많이 안사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줄 선물, 친한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선물같은 것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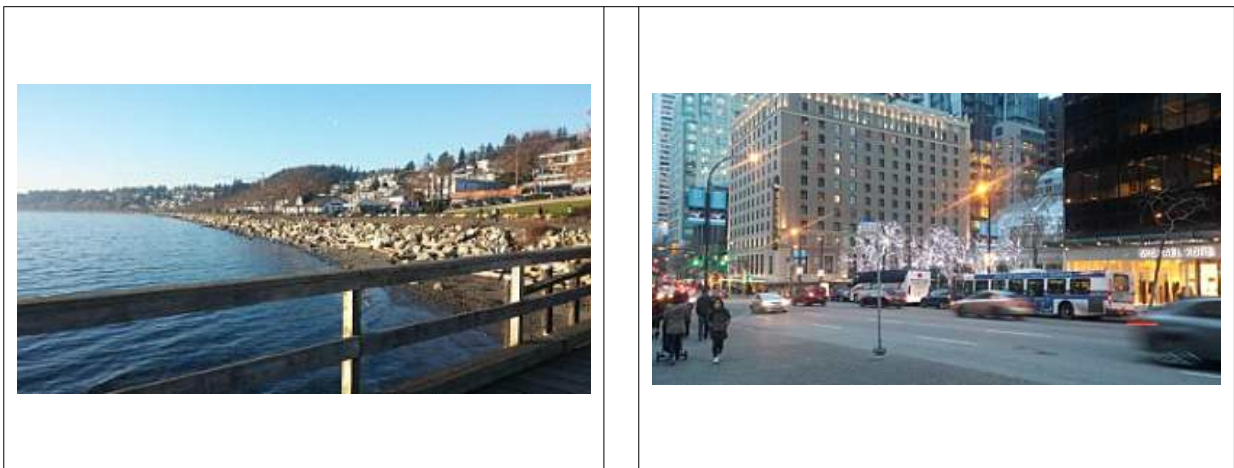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벤쿠버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실감이 안났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걸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않은 성격에 처음에 제가 외국인친구들과 외국인 가족들과 잘 생활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보니 어느새 잘 적응하고 재밌게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서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유창하게 말할 정도로 늘진 않았지만, 4개월 내내 영어로 가족들과 얘기하고, 반친구들과 얘기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4개월이 굉장히 길거라 생각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말 짧은 거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한국 가서도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여 나중에 다시 한번 벤쿠버에 가서 벤쿠버의 외국인 친구들과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벤쿠버-화이트락	Vancouver city center station 앞
	
홈스테이 크리스마스	Convention center
	
반친구들이랑	벤쿠버 크리스마스마켓